



2018.
11. 02 -
11. 25

백성희장민호
극장

윤미현 작
최용훈 연출

렉사스 고모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는 어떠한 형태의 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극단



줄거리 ‘미국에서의 수영은 정말 근사할 것 같았는데...’

춘미는 주한미군 리차드를 따라 미국 텍사스로 건너갔다.

비키니와 수영장, 모닝커피를 꿈꿨지만 정작 그녀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옥수수밭과 목화밭이었다.

36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 돌아온 지 오래됐지만 아직 미국에 있는 것처럼 캔디와 말린 과일 쪼가리를 조카와 오빠에게 보내주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젊은 여자가 오빠의 새 아내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정작 끝도 없는 일들에 파묻힐 그 여인을 보면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떠오르는데...

작가의 글 윤미현

과연 엘도라도는 있거나 한 걸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

그들은 있는 힘껏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황금의 땅은 발견하지 못한 채

시간이 저무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꾸 뭔가를 잃어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위해 애쓰던 사람들.

그 애쓰던 사람들(여성들)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

텍사스고모 역을 맡아주신 박혜진 선생님께 이 지면을 통해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율과 외형률, 그리고 언어의 함축성까지 깊게 연구하시고, 연기로 표현해 내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한편의 큰 '詩' 같았습니다.

◇◇

정직한 글쓰기를 계속 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작품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괘짝> <장판>

<크림빵을 먹고 싶었던 영화> <철수의 난>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 <팬티입은 소년>

<젊은후시딘-어 러부 스토리> <평상> <텃밭킬러>

<우리 면회 좀 할까요?>

수상내역

2017 제4회 ASAC창작희곡공모 대상 <텍사스 고모>

2016 서울연극제 희곡상 <장판>
전국창작희곡공모 금상 <크림빵을 먹고 싶었던 영화>

2015 대전창작희곡공모 우수상 <철수의 난>
대산문화재단 희곡부문 신인창작지원 수상

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우수작품제작지원 선정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작
<팬티입은 소년>

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가지원(AYAF)
공연예술부문 극작가 선정 <젊은후시딘>

2012 서울연극협회 '희곡아 솟아라' 희곡공모당선 <평상>

아픈 이야기일수록 질척거리지 않고 건조해야

최용훈

극단 작은신화 대표
서울연극제 예술감독
청운대학교 뮤지컬학과 교수



주요작품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차이메리카> <위대한 유산>
<스카이라잇>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법> <콜라소녀> <뽕날>
<삼국유사프로젝트 - 꿈> <에이미> <동주앙> <김치국씨 환장하다>
<황구도> <길 위의 가족> <가정의학백과> <조용한 손님>

수상내역

2016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올해의 연출가상
2010 김상열연극상
2003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2002 동아연극상 연출상
1999 동아연극상 연출상
1998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대본이 재밌었습니다. 윤미현 작가가 깊어졌다는 느낌이랄까요? 텍사스 고모가 텍사스로 갔다가 돌아온 땅에 또 다른 텍사스 고모들이 있다는 설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이후 <광주리>) 이후에 두 번째 작업인데 작가와의 호흡은 어땠는지요?

<광주리> 때는 처음 작업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연습 초반에,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희곡을 쓰면서 생각했던 콘셉트와 연출가로서 작품을 보고 해석했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텍사스 고모>를 할 때는 윤미현 작가만의 뚜렷한 메소드를 지난 작업을 통해 잘 알게 되어서 그랬는지 저번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몇 가지 큰 그림 정도만 맞춰보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굳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가는 부분도 많아진 것 같고요. 물론 중간중간 이야기를 나누고 수정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연출님께서는 창작극 연출을 많이 해오셨는데, 다른 창작극에 비해 특히 <텍사스 고모>가 갖는 희곡으로서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대사로 전달되는 언어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관계의 역전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행동들을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상황이 대비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텍사스 고모와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가 나란히 서있는 마지막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작품 전반적인 내용이 결혼이주자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 지금 한국사회가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는데 실상은 우리 스스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당할 때는 크게 느끼다가 우리가 가해자가 된 지금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성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내용을 아주 심각하지 않게, 경쾌하게 풀어낸 점이 좋았습니다.

<텍사스 고모>는 지난 9월 국립극단에서 공연했던 <운명>의 현대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매개로 결혼이주자가 된 주인공 메리와 낭만적 꿈을 좇아 무턱대고 리처드를 따라 미국으로 간 텍사스 고모가 닮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결혼이주자는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매우 익숙한 소재입니다. 기존에 접했던 것과는 달리 <텍사스 고모>에서는 연극적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면서 연출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운명>의 현대판, 맞습니다. 하와이 결혼 이주는 훨씬 더 이전인 1910년대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한국 여성들이 주한 미군을 따라 미국으로 결혼 이민한 사례들이 꽤 많았죠. 그들이 미국에 가자마자 버림받기도 하고, 끝내 적응을 못하기도 했고요. 극중 텍사스 고모가 “결국 돌고 돌아는데 세상은 바뀌지도 않아”라는 대사가 단순히 텍사스 고모인 춘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통틀어보면 거의 100년 동안 지속되는 이야기라는 점이 더 가슴 아프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적이지 않고 굉장히 연극적으로,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부조리성이 돋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감성적이지 않고 담담하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관객들이 이성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단조롭고 전형적인 표현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과 작가의 언어만이 갖는 독특한 청각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제적으로만 접근하면 흔한 다큐멘터리일 수 있지만 극장 무대 공간에서 작가의 언어가 주는 고유한 느낌과 인물들이 펼쳐내는 서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고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텍사스 고모>를 보면, 피해자는 다양하고 많은데 궁극적인 가해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관객이 불편할 수도 있는 직접 가해하는 장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약화된 것으로, 덜 극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연출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한 꺼풀 덮어놓고 오히려 겉가지같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변방에서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는 방법들이 새로운 각도로 문제를 바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흘러가듯 주변부를 보다보면 남게 되는 생각? 율행이 적 생각은 못하고 있다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대면하게 될 것 같아요. 감정들을 배제시키면 훨씬 더 근원적인 것들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주자들이 피해를 받고 배척당하는 구조, 인식의 문제와 자본의 논리 같은 시스템의 문제들은 가해의 상황들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극 전반적으로 밋밋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대사가 주는 언어적 유희와 인물들의 특성, 모순적인 상황들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텍사스 고모’인 춘미 역에 박혜진 배우가 캐스팅 되었어요. 박혜진 배우의 조곤조곤하고 침착한 연기가 텍사스 고모의 낭만성을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춘미는 이름이 있음에도 그냥 텍사스 고모라고 불리고, 나머지 여인들도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 ‘소철 엄마’ 등 구체적인 이름이 없어요.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세대의 결혼이주자들이 나오는데 각각이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일종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캐스팅이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캐스팅은 작가랑 많이 상의한 부분이었습니다. 작가가 그려놓은 인물들의 이미지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텍사스 고모는 작가가 적극적으로 추천한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윤미현 작가의 대사를 처리하는 배우의 능력들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점 때문에 배우를 캐스팅할 때 배우가 보여주는 외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연기뿐만이 아니라 외형 그 자체를요. 시각적인 부분에서부터 차별성을 주고 싶었어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의 경우, 독일에서 와서 한국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배우가 마침 오디션에 참가했기에 캐스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캐릭터 부분에서는, 좀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외국이라는 곳에서 우아한 삶을 꿈꿨던 춘미와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잘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소철 엄마, 사회적 지위 상승을 목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해서 온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까지, 각각 조금씩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달라도 결국 그들이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똑같은 구조적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보편성, 공통적인 그 부분들을 관객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춘미라는 캐릭터가 흥미롭습니다. 미국에 간 것도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다는 굉장히 낭만적인 이유였는데,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은 언제나 낭만적 기대를 배반합니다. 미국에 있는 척하며 의정부에서 살다가 괴산으로 돌아와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를 대면했을 때는 과거의 자신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연출가의 입장에서 이 묘한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춘미는 혼자 남겨졌을 때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혼잣말로 계속 자신이 원했던 것, 그러나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남들과 대면할 때는 절대 그런 태도를 드러내지 않아요. 스스로 실패한 자신의 선택과 그로 인한 과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이유이겠고, 그래서 마음속에 숨긴 채 살아가죠.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에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그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춘미는 이상적인 낭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실패한 걸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안쓰럽고 애정이 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가 마지막에 밭에서 일을 하면서 “빙 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춘미가 텍사스에서 옥수수를 따면서 했던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춘미가 겪은 부조리한 상황이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더 애잔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이끌어 가는 것은 여러 결혼이주자들보다는 실상 사춘기 딸과 소철, 동네어린이 같은 청소년 혹은 어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성인연기자를 캐스팅하셨는데, 성인이 청소년이나 어린이 연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 과장되거나 유치해질 수 있거든요. 이 역할을 맡은 배우들에게 연기 부분에서 특별히 요청하거나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우리의 관습과는 달리 본능에 가까운 인물들이 어리고, 어린이들이 이성적이고 사변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사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연기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히려 애들은 이 같은 연기를 보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세상 다 아는 것 같고 뭐든 해탈할 것 같은 그런. 어린 배역이지만 어린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목소리나 발음도 어리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품이 전반적으로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다보니 동네 청소년 3인방이 그나마 정감이 가는 인물들이기도 한데, 그 정감이 그들의 처지에 대한 이성적인 관점에서의 애정이지 감성적인 느낌은 아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들과 작품을 통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이 작품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최우선적으로는 극적인 재미, 단순하게 연극을 보고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개조하고 혁신해야 해! 이런 마음을 배제하고 예술은 예술 자체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작품이 주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공연을 보고 난 뒤에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자기반성이 있겠지요. 너무 거대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옆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건너듣는 것처럼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음. “아무 말 대잔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옳은 말 대잔치이다.”



박혜진

텍사스고모(춘미)

연극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아버지와 아들> <3월의 눈>
<그 집 여자> <하얀자화상> <춘궁기>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맥베드> <돼지와 오토바이> <오장군의 발톱> 외

수상

1984 동아연극상 여자 연기상



윤안나 Anna Elisabeth Rihlmann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

연극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생각은 자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국가없는 나라-사라진 기억들> 외

수상

2018 기독교문화대상 영화부문



김용준

아빠(춘미의 오빠)

연극

<로퐁찬 유랑극장> <검은 입김의 신> <칼 세이건을 위하여>
<두 형사 이야기> <하퍼 리건> <우리 노래방 가서 애기 좀 할까?>
<안녕, 피아노> <당신의 잠> <해무> <칠수와 만수> 외

수상

2015 서울연극인대상 연기부문 대상



주인영

사춘기 딸(춘미의 조카)

연극

<운명> <얼굴도둑>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 <1945>
<인어, 바다를 부른 여인> <반신> <본다> <연애시대>
<야끼니꾸 드래곤>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외

수상

2006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신인상
2006 동아연극상 신인 연기상



이기현

소철

연극

<피와 씨앗> <중립국>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 <산허구리>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혈맥> <햇빛사위> <소년B가 사는 집> 외



홍승만

동네어린이

연극

<인간의 가장 오래된 외부> <아이스계끼> <로드씨어터2>
<짜지르는것들> <바카이> <이상협의원물> <카리브해의달>
<안티랜드> <맥베드언리미티드> <사랑의편지들> 외



이수미

멕시코아줌마 & 소철할머니

연극

<운명> <손님들> <처의 감각> <모도드라마 햄릿릿햄> <반신>
<템페스트> <맥베스> <춘풍의 처> <용호상박> <세자매> 외

수상

2015 서울연극제 연기상



김은아

장사아줌마 & 소철엄마

연극

<비밀번호> <봄> <조니워커 블루스> <마라사드> <미래도둑>
<러브앳츄얼리> <안진사가 죽었다> <취가로의 결혼> 외



이정은

마을부녀회장(진숙, 춘미의 친구)

연극

<말뚝의 눈물> <트로이의 여인들> <햇빛사위> <산토끼>
<멧밥묵고기> <장석조네 사람들> 외



수난의 월경과 연쇄

윤미현의 작품들과 <텍사스 고모>

이주영

연극평론가, 드라마투르크

역공의 방법론

연극의 임무이자 미덕 중 하나는 사회적 병폐를 무대에 제출하고 그것을 주제로 극장 밖 사람들을 참여적・실천적 존재로 이동시키는 데 있다. 무대에 선택된 작가의 시선, 현실의 문제는 무대와 객석 간 공명의 에너지와 연대의 성패를 가르는 가치이자, 변혁과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작가 윤미현의 작품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윤미현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무대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작가가 동시대적 관심이자 고통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미현은 소외에 주목한다.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사회와 중심에서 유리되어 가는 존재를 무대화하여 관객을 실천적 관객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창작의 핵심이 되는 두 존재가 있다. 2012년 한국희곡작가협회 신춘문에 당선작인 <우리 면회 좀 할까요?>를 시작으로 <뒷발길러>(2012), <평상>(2012), <젊은후시딘-어려부스토리>(2013), <팬티입은 소년>(2014),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2014), <철수의 亂>(2015), <크림빵을 먹고 싶었던 영화>(2016), <장판>(2016), <퀘짱>(2016),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2017) 등까지 윤미현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외의 민낯을 드라마에 있어 주로 집과 노인 문제에 집중한다. 가난과 함께 사회로부터 주변화된 자들에게 집은 더 이상 소유의 개념을 부정당하고 급기야 주거조차 위협을 받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노인은 우리로부터 거부당한 채 사회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문제적 존재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주변화・타자화되어 가는 소외의 존재와 우리로부터 멀어져가는 집이라는 공간은 윤미현의 작품세계를 읽어내는 중심 키워드이다.

소외로 점철된 견딜 수 없는 현실, 노인・집과 함께 병폐의 현실 앞에 선 작가 윤미현의 작품은 관객들을 적잖이 당혹시킨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인간을 배반한 현실의 폭력에 무너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인물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암흑의 세계의 논리를 역으로 배반하고 공격한다. 어머니와 아들은 철거 위기에 놓인 지하를 세련된 아파트로 믿으며 중산층 코스프레를 하고(<평상>), 이마저도 불가능한 이들은 공원을 철저히 집으로 디자인한다(<젊은 후시딘>). 또한 어느 일가족은 형체조차 남아 있는 많은 사방이 뽕 뚫린 집에서 국가를 환기시키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집주인이자 치매에 걸린 노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사회와의 접촉을 거부하며 살아간다(<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 그리고 2017년 작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은 집안의 모든 것들을 모조리 팔아버리고, 삶의 방향성을 잃은 청년 세대는 자신을 밀어내고 노인의 삶을 택한다(<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이처럼 견딜 수 없음, 그 안에서 쉬이 그려질 수 있는 인물들의 지리멸렬하고 패배적 삶은 무대에서 제거된다. 예상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서 탈출구 없는 현실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묘한 쾌감으로 이동한다.

사회의 무차별적 공격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인물들의 적극성 못지않게 윤미현의 창작력 또한 앞서 언급했듯 상당히 공격적이다. 매해 한 편 이상의 신작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 작품들 또한 활자화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무대화되고 있다. 이즈음해서 윤미현이 제출한 소외라는 문제의식과 역공의 방법론, 그로 인한 통쾌함이 동시대 연극장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2018년 올해도 어김없이 연극 무대에서 윤미현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무대와 객석 사이의 소통과 연대의 장이 마련된 셈이다. 이질적 두 단어를 결합하여 흥미를 자극하는 <텍사스 고모>란 제목의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제목만큼이나 본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발견된다. <텍사스 고모>에 등장한 인물들은 작가가 기존의 작품들에서 경험했던 당혹함과 통쾌함을 보여주기보다 그러한 공격이 불가능한 역사와 현실의 세계에서 서 있다. 윤미현의 극작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역공의 불가능성, 그리고 인간다움

윤미현 작품의 변화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최근작인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만 살펴봐도 그 변화의 조짐을 읽어낼 수 있다. 자식에게 물려준 집을 도로 달라는 광주리할머니, 이러한 자신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기보다는 무시와 소외로 일관한 자식들, 이에 강력한 한방으로 자식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날려버린 그 통쾌함은 기존의 작품과 그 궤를 같이한다. 허나, 극의 다른 한편에서 광주리할머니는 적극적인 저항이 불가능하고 고독사라는 소외의 극단을 보여준 또 다른 노인을 향해서는 연민과 아픔으로 함께한다. 극단과 현실, 사회 및 인간을 향한 전복의 통쾌함과 인간에 대한 연민, 이 두 입장 사이에서 기존의 작품들은 전자의 방향으로 극이 진행되었다면, 이번 신작 <텍사스 고모>에서는 후자에 무게 중심을 두고 극을 전개시킨다.

신작 <텍사스 고모>에서도 춘미라는 노인을 무대에 세운다. 현재로부터 36년 전의 춘미는 괴산에서의 가난한 현실과 결별하고 주한미군 리처드를 따라 집에 딸린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휴양을 보낼 크리스티나를 꿈꾸며 텍사스행을 택했다. 허나, 도착과 함께 텍사스라는 현실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리처드가 미국인이 아니라 멕시코인일 거라는 멕시코여자의 전언을 듣는 순간, 낭만이 아닌 노동과 가난을 마주하는 순간, 즉 먼 곳에서의 꿈이 지금 여가의 현실이 되는 순간, 크리스티나는 다시 괴산의 춘미로 이동한다. 그간의 윤미현 작품을 생각한다면, 이후 춘미는 리처드가 부여해준 크리스티나라는 최면에 걸려 노동을 거부한 채 비키니를 입

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혹은 옥수수 밭인 텍사스 노동현장을 수영장이 딸린 집으로 만들어 중산층 미국인 코스프레를 할 것이다. 하지만 <텍사스 고모>에서 이러한 역공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역공의 효과는 지금/여기에 만연해 있는 오염된 민낯, 희망 없는 어둠과 막막함에 대한 강한 폭로이다. 윤미현은 <텍사스 고모>에서 더 이상 역공과 전복의 세계를 그려내지 않는다. 지금/여기만의 문제도 아니거니와, 함부로 춘미와 이주노동자의 삶을 재단하고 규정짓지 않으려는 작가 윤미현의 그들의 삶에 대한 존중과 그로 인한 신중한 태도가 담겨 있기에 그러하다. 작품은 역공과 전복적 상황을 택하는 대신 희망과 그것을 위협하는 폭력적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다. 춘미의 희망인 크리스티나로서의 삶, 하지만 그 바람에 상처를 내는 그곳의 현실은 질긴 옥수숫대가 가득한 곳, 노동과 가난 너머의 삶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되는 또 다른 괴산에 다름 아니다. 수난은 이렇듯 소멸을 거부하고 괴산에서 텍사스로 월경하였다. 춘미는 희망을 무너트리려 하는 현실의 공포이자 수난의 실체 앞에 늘 배고파했던 고향 친구인 진숙이 건네준 고추장을 찍어 먹으며 버텨낸다.

윤미현은 이번 작품에서 이전 작품들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음식에 주목한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음식은 인간의 삶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역사적 아픔을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물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인 춘미는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희망을 고추장으로 붙잡는다. 그 고추장은 진숙이 가난한 삶에서도 친구의 희망을 위해 아낌없이 건네 준 것이다. 가난과 고통의 괴산이지만 인간에 대한 따뜻함과 정이 있던 고향, 그곳의 인간다움을 텍사스 어딘가에 있을 리처드에게도 기대해보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의 버팀과 함께 고추장이 담긴 그릇은 밑바닥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희망 또한 바닥이 드러났음을, 현실에는 인간다움뿐 아니라 수난도 뒤섞여 있음을 말해주는 멕시코여자가 건네준 타바스코로 채워진다.

36년이 지난 현재, 춘미가 한국에 돌아왔다. 역공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에 수난으로부터 결별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춘미는 텍사스 캔디와 딸린 파인애플로 아픔의 역사를 드러낸다. 한편 괴산은 또 다른 의미에서 36년 전의 텍사스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19세의 이주 여성과 그곳에서 겨우 참고 견디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통해 수난은 월경에 이어 연쇄하고 있다. 순환과 반복을 거듭하는 이 역사적이면서 동시대적인 수난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윤미현은 역공과 전복이 불가능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진숙이가 춘미에게 건네준 고추장, 그 인간다움을 무대에 던지시 내민다. 윤미현의 극작 세계의 전환점이 되는 <텍사스 고모>는 관객들에게 작가가 내민 인간다움의 가능성과 힘, 그리고 그 항방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무대디자인



이엄지

무대디자이너

현재의 순간순간이 흔적으로 남아 과거의 기억이 되고, 순간순간의 기억들은 차곡차곡 쌓여 과거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는 한 공간에 공존하며,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지, 목적지, 경고표시, 통관표시 등 여행의 흔적이 쌓이고 쌓인 수출박스는 우리네 각각의 인생의 기록과 비슷합니다. 여러 목적지를 돌고 돌며 낡고 지저분해진 박스들은 흔적으로 남은 많은 표시들을 통해 각각이 가진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의 이야기와 다른 듯 비슷하여 때론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아픔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듯 비슷한 과거의 아메리칸 드림과 현재의 코리안 드림은 꿈이라는 내용물을 담은 두 개의 박스라는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의상디자인



텍사스고모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

강기정

의상디자이너

이주민과 그 가족들을 향한 편견과 무시. 텍사스와 과산, 멀리 떨어진 공간이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듯 다릅니다.

가해자 또는 방관자가 되어버린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둡고 무채색의 의상을, 피해자 또는 편견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이방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스트라이프를 넣어 표현했습니다.

아직 때 묻지 않았기에 순수함을 가진 사춘기딸은 흰색 티셔츠를, 유학을 꿈꾸며 청바지를 입던 키르기스스탄 여인은 한국의 노동자가 되어 색이 바랜 한복을 입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점점 좌절해가는 촌미의 노동복은 그라데이션 형태였다가 과산으로 돌아와서는 무너진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의 '깨끼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긋난 밀단과 기울어진 소매들처럼, 혹시 우리도 빼뚫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편견에 물들어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소철

사춘기딸

동네어린이

아빠

마을
부녀회장

소철
할머니

소철엄마

멕시코
아줌마

한국에 온 결혼이주 여성들

허오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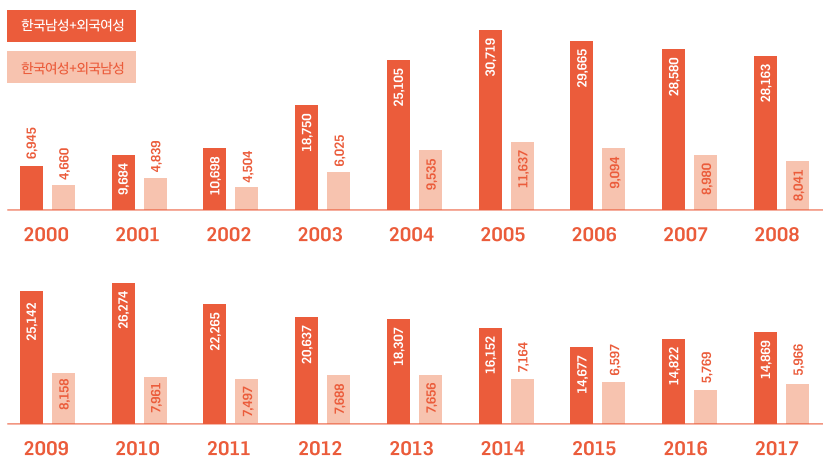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한국의 근대사에는 식민지와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가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한반도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다. 해외의 원조 물자에 의지했던 순간도 있었다. 지금은 외국 인 이주 노동자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로 나갔다.

식민지가 시작될 무렵, 조선의 여성들은 '사진결혼'으로 하와이로 건너갔다.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던 조선 남성과 서로 사진만을 교환한 후 아내가 되어 이주한 여성의 규모는 1910년부터 1924년 5월까지 하와이 951건, 미국 본토 115건 등 총 1,066건이었다.¹⁾ 또한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이 있었다. 미군이 주둔한 아시아 지역에는 기지촌이 존재했다. 남한을 비롯한 오키나와,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 기지촌이 있었다.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은 기지촌에서 일했을 것으로 추정되곤 한다. 1950~1989년 사이에 십만 명에 가까운 한국 여성들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갔다.²⁾ 물론 그들이 모두 기지촌에서 일했던 여성들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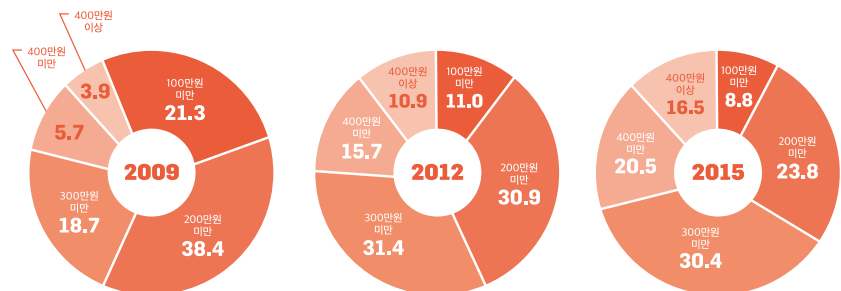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계 여성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 중에서도 '한국남성+외국여성'간의 혼인은 1995년부터 증가 추이를 보이는데 특히 2002년부터 1만건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3년만인 2005년에 30,000건을 넘어섰다.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7년에 14,869건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사이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사람이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³⁾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 추이 (단위:건)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줄면서 한국인과 결혼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줄고 있다. 국제결혼이 많았던 시기(2004년~2012년)에 들어 온 이주여성들은 이제 정착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이주여성의 욕구도 한국어 교육이나 자조모임에서 취업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남편의 경제적 은퇴,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부담 등으로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졌다. 반면에 이주여성에게 만족을 줄 만한 일자리는 별로 없는 현실이다.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3년 마다 조사하는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이 일하는 비율은 2012년 조사에서 52.4%, 2015년 조사에서 59.5%였다. 2015년 한국 전체 고용률에서 여성 49.9%인 것과 비교하면 이주여성 취업률이 10% 이상 높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고용형태는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아 불안한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고 있었다.

국제결혼가정의 가구 소득 추이 (단위:%) ⁴⁾



많은 이주여성들이 취업하여 노동자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들을 외국인 머느리로서 전업주부를 상상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주여성들의 삶이 녹록치 않다. 이주여성들이 임금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처한 경제적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위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다문화가족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2009년 59.7%, 2012년 41.9%, 2015년 32.6%로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평균적으로 어렵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집단적으로 한국에 온지 20년이 되어 간다. 그 세월만큼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다. 과거에 주로 주한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호명했던 '혼혈아'들은 지독한 차별에 직면해야 했다. 순혈사회로 상상했던 한국 사회에 이질적인 존재였던 1세대 혼혈인과 다르게, 현재의 한국인 남성+아시아계 여성 사이의 아동은 포용의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명칭도 '혼혈아'에 담긴 부정적 편견을 벗어나고자 코시안(코리안+아시아), 온누리안(온세상+ian)을 거쳐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에 대한 호명의 방식 변화는 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이루어졌을까? 20만을 넘어선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구성이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 부모 이주여성이나 싱글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혼자된 이주여성이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 상대가 한국인 남성이기도 하고, 외국 출신 남성이기도 하다. 한국인과 재혼하면 다문화가족이 되지만, 본국 출신이나 다른 나라 출신 외국인 남성이면 다문화가족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가족이 된다. 이럴 경우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문화 가족 구성이 다양화 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

제도적 흐름은 시민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구 국가 출신과 결혼한 한국인 가족은 글로벌 가족이고, 아시아계 여성과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다문화 가족'이라 인식되고, 미디어에서 공공연히 재현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내재화된 사회다. 서구 사회, 특히 미국에 대한 선망이 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서구 선망은 언어 위계로도 나타나 영어권 출신에게는 한국어 구사능력을 거의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 이주여성에게는 한국어와 한국(가족)문화에 익숙해지라고 강요한다. 미국 출신 백인 여성이 엄마였다면 엄마가 외국인이어서 언어인지 능력이 낮고,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을 쉽게 들을까?

다문화는 '취약계층'과 동일시되며, 차별의 표식이 되었다. 다문화 열풍과 더불어 생긴 '다문화가정 상'은 다문화 수용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전통적 가치를 얼마나 구현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저개발국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전제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다. 서구 백인여성에게는 기대하지 않을 인식들이기 때문이다.

1) 국제결혼담론의 계보학적 연구 : '사진결혼'을 중심으로 / 강진구 / 2011

2)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군인아내들 이야기 / 여지연 / 2007

3)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재구성

4)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 2012, 2015년

출연

텍사스 고모	박혜진
아빠	김용준
멕시코아줌마&소철할머니	이수미
마을부녀회장	이정은
사춘기딸	주인영
소철	이기현
동네어린이	홍승만
장사아줌마&소철엄마	김은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여자	윤ানা

스태프

작	윤미현
연출	최용훈
무대	이엄지
조명	김성호
의상	강기정
음악	이형주
음향	강수룡
분장	백지영
소품	노주연

조연출	김정민 백창하
무대감독	문원섭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음창인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레이터	박성훈
음향오퍼레이터	유보미
무대진행	윤건일 김민주
의상진행	이경민
분장진행	김정연 송윤미
무대제작	무대중심(대표 유길성)
의상제작	휴보떼 (대표 강기정)
소품제작	연스테이지(대표 노주연)
조명팀	박혜민 김누리 양상모 원유찬 손민영 이다빈 이상민
음향팀	김현욱 김학준 이선호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오지수 이정민
마케팅	한나래 박보영 최윤영 김태은 이다영 이송이 김효진 소여진
대학생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5기 김정민 김희지 문수빈 손은정 이승희 허정원
그래픽디자인	써니아일랜드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붐빔
홍보영상	247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 프로젝트
옥외광고	킨비즈커뮤니케이션 문화공장 오감

홍보물인쇄	써니아일랜드
홍보사진	나승열
연습사진	박수환
공연사진	SUPA GROUND
기록영상	미니멀랩 프로젝트
프로그램디자인	스튜디오 붐빔
프로그램인쇄	미림아트

티켓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매표안내원	김인혜 허수련 이준원 이은지 김다애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이시라 권묘정 전준형 김성주 박만수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김소희 박채현 오민지 정이현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박성호
제작진행	장지은

주최 및 공동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재)안산문화재단 대표 백정희
-----------	--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장	설병환
프로듀서	양찬희
언론홍보	김수진
마케팅	임진희 추은지 최현아

재단법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김소연 청년인턴
-------	---------------------------------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심소연 박성호 정채영 프로듀서 김소현 이아름 청년인턴
-------	---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다영 김효진 이송이 마케팅 오지수 이정민 홍보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관리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소여진 청 년인턴
--------	--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김무석 기술감독 김승철 신승호 무대감독 음 창인 이병석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최슬 기 홍영진 무대제작감독 임채호 무대기계 박지수 무대의상 감독 김민주 윤성희 주원국 김태진 김민정 나누리 연수단원
-------	--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이민희 복무·복지후생 정병욱 시설·안전관 리 박예원 정보화·전산 최태영 경영기획·인사 김시내 예술 감독 보좌 주현우 노무·자산
-------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 은정 예술교육 권은지 연수단원
------------	--

2018 시즌단원	이수미 정원조 최지훈 이종무 김 한 주인영 양서빈 이원희 김수아 박경주 정새별 홍아론 임준식 이호철 강해진 박가령 조남용
-----------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	----------------------

명동예술극장 차기공연

록 앤 롤

ROCK 'N' ROLL

역사를 바꾼 건
정치가 아닌 록앤롤이었다!

11.29. - 12.25.
작 톰 스토파드 연출 김재엽

백성희장민호극장 차기공연

올해 가장 역동적인 무대가 온다

호신술

메치고 옆어 치는
호신술 한 판!

12.5. - 12.24.
작 송영 연출 윤한술